

브렉시트(BREXIT) 결과가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과정에 미치는 영향

Anna Matysek-Jedrych

Assistant Professor at the Poznan University
of Economics & Business, Poland

■ 주요 내용

- ☐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는 영국을 포함하여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침.
- ☐ 브렉시트의 결과로 영국의 무역과 투자, 금융 산업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영국뿐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의 전반적인 통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 EU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와 개정이 필요함.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는 영국을 포함하여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침.**

- 2016년 6월 24일은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었음. 영국의 EU 탈퇴(Brexit, 이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된 날이었으며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유럽 전반의 극단적인 포퓰리스트들은(Populist) 영국이 EU 통합 체제인 EU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자주 다뤄질 것이 분명함.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함. 바로 다른 EU 회원국들의 EU에 대한 경제사회적 의존도가 영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임.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음(도표 1~3 참조).
 - 영국 수출품의 53% 만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반면 동유럽 국가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7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음(체코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80% 이상이며 폴란드의 경우 전체 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함).
 - 동유럽 국가들은 투자에 있어서도 EU 의존도가 영국에 비해 높으며(외국인직접투자 중 약 50%가 EU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됨) 해외 이민자 수도 상당히 많음.
 - 최소 210만 이상의 폴란드인과 260만 이상의 루마니아인이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을 찾아 자국을 떠나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주함. 라트비아의 경우 이주민의 숫자가 적지만 전체의 10%를 차지함. 그나마 체코의 상황이 영국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임.

표1. 2015년 말
대 유럽연합(EU) 수출 및 수입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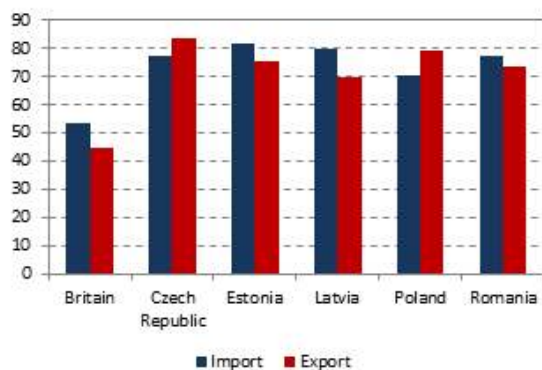


표2. 2015년 말 전체 인구 대비
EU 회원국 유출 인구 및 유입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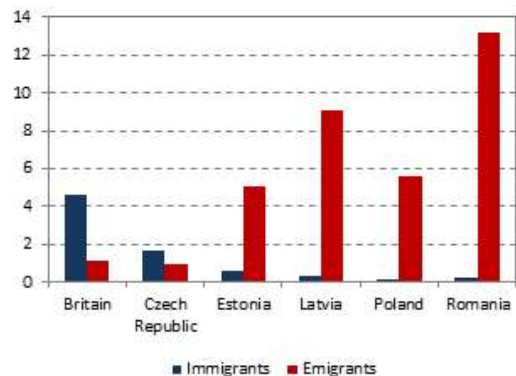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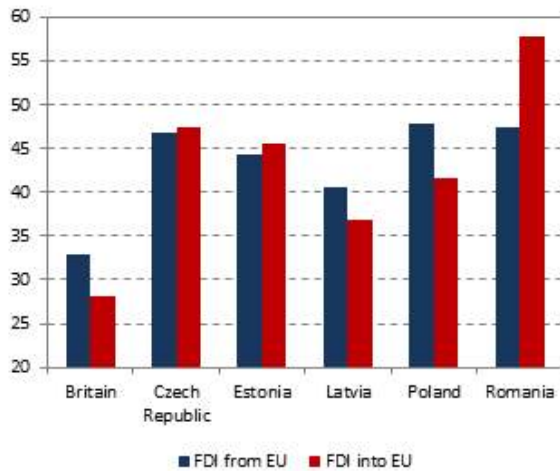


표3. 2015년 말 전체 투자 대비
EU 회원국 유입 FDI 및 유출 FDI 비중(단위: %)



자료: 유로스타트(Eurostat, 2016)

2

현황 분석: '브렉시트'가 유럽의 경제통화 통합 과정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의 결과로 영국의 무역과 투자, 금융 산업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영국뿐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의 전반적인 통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아래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임.
 - 우선, EU가 '축소'되면서 EU의 영향력 역시 작아질 것임. 여기서 '축소'란 인구의 축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6500만 명 이상 감소, 2016년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세계 GDP 중 EU 전체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17.0%에서 14.6%로 감소, 2016년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상품과 서비스 수출 비중 33.9%에서 30.3%로 감소, 2016년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음. 또한 세계 금융 시장과 관련하여 '축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세계 금융 시장에서 영국의 지위가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EU의 손실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EU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분명히 줄어들 것임.
 - 둘째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경제가 막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으나 (파운드화의 급격한 하락,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가능성 증가 등이 영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1차 신호임). 브렉시트가 오히려 향후 EU 통합에 예기치 못한 전략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영국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다른 EU 회원국들에 있는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정치인들의 주장 역시 악화될 것이기 때문임. 결국 영국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많은 EU 회원국 국민들은 EU를 확실한 경제 통합기구로 여기게 될 것임.

- 셋째로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영국이 ‘브렉시트’가 하필 최악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EU는 신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응집력과 단결된 목소리와 능력이 필요한 상황임. EU의 해묵은 문제는 세계 금융 위기와 개별 회원국(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구조적·채무 위기로 인해 발생함.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로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과 난민의 대거 유입 등이 있음. 또 다른 문제들은 특히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집권당을 중심으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연관돼 있음. 지난 몇 년간 EU 주요 회원국에 대한 EU의 지원이 줄어든 것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때문임(PEW Research Center 2016).
- 마지막으로 ‘브렉시트’가 정치경제체계에 미칠 파장은 EU 해체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통합을 부추겨 ‘유럽국가의 국민 간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연합(ever closer union among the peoples of Europe)’(EU 조약의 서문)이 될 수도 있음. 통합 과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특히 경제통화동맹)은 현재 침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상황을 ‘제2차 유럽동맹경화증¹⁾의 시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보임. 브렉시트는 역설적으로 더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움직임을 부추기는 추진력이 될지도 모름.

3 전망과 시사점

☒ EU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와 개정이 필요함.

- 브렉시트가 유럽의 통합 과정과 중동부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우며 유럽 통합 과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하지만 통합 과정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앞으로의 행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유럽 전체에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창출하는 등의 유럽의 사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함.
- 현재 EU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정책 관련 조항과 비용뿐 아니라 금융 부문(영국이 금융서비스 관련 단일유럽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리더 격으로 인식돼왔기 때문)과 노동 부문(브렉시트는 자유 이동 원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과 관련된 것들임.
- EU 체제는 그간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변동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특히 피난 및 이민에 관한 공통 정책, 국경 보안 및 국가 주체성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 국가 문제 등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와 개정이 필요함. **EMERiCs**

1) 처음 유럽동맹경화증의 시기가 나타난 때는 1970년대~80년대로 유럽 통합 과정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던 때임.

참고문헌

PEW Research Center
Treaty on European Union
Worldbank database